



2018 국내 · 외 사업보고서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A-PAD Korea)

목차



해외 사업

로힝야 난민 지원사업	04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진피해 지원사업	24
서일본 폭우피해 지원사업	30

국내 사업

청소년 재난안전 원정대 Y.S.K 1기	32
아이쿱 재난대응리더 양성과정	34



감사의 말

● 여러분이 나눠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폭력, 박해를 피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과 자연 재해 앞에 소중한 터전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데 값지게 사용됐습니다.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련한국협회(A-PAD Korea)의 2018 해외 긴급구호사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활동은 후원자분들이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파트너 단체 DCH-Trust(A-PAD Bangladesh), ACT(A-PAD Indonesia)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A-PAD Korea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재난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NGO·언론 등이 언제든지 협력 가능한 재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A-PAD(Asia Pacific Alliance for Disaster Management)는 아시아·태평양 내 국가들이 협력하여 재난현장 긴급구호·복구·방재·재난 이후 지역재생 등을 주로 다루는 아시아 대표적 국제기구입니다.

A-PAD가맹 6개국「연대의 힘」

A-PAD 가맹국은 2018년 현재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일본, 필리핀, 한국까지 6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각 국의 NGO·기업·정부 등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펼칩니다. A-PAD이 연맹국과 공통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A-PAD가맹 6개국「연대의 힘」



로HING야 난민 발생배경

• 로HING야족

● 로HING야족은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주 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입니다. 대부분 불교도인 미얀마 내 다수 버마족과 달리 무슬림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HING야족이 별개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에서 불법 이주해 온 무슬림 집단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당시 농업노동자로 이주한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25일
로힝야 무장세력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경찰초소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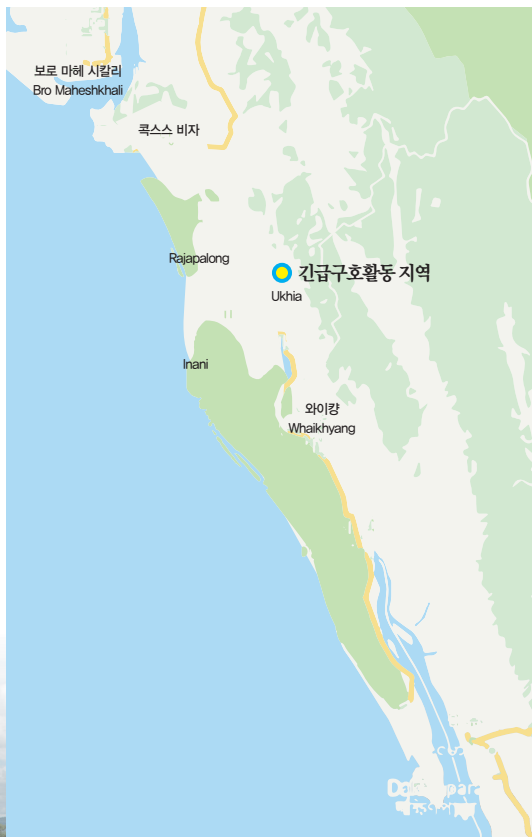
이후, 로힝야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폭력진압**
(약탈, 살인, 성폭행 등)



살기 위해 사선 넘는
로힝야족 사람들
(나프강에서 보트나
헤엄으로 탈출)



우여곡절 끝에
**포화상태의 난민촌
도착**
(방글라데시
코克斯바자르)



숫자로 보는 로HING야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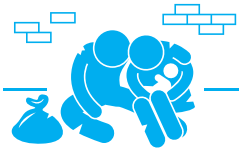
1,000,000 명

8월 25일 이후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난민 수



80 %

난민 중 어린이와 여성의 비율



300,000 명

긴급 영양지원이 필요한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



1/5 명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 의약품, 쉼터, 식수입니다.”

“1백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하수 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난민촌에서는 보건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니다. 면역력이 특히 약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 A-PAD Bangladesh 골람 모스토파(Golam Mostofa)



1/3 명

전체 난민 중 1/3은 제한적으로만 식량
배급을 받고 있음



260,000 명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 수



68,000 명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여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여성용품 지원이 필요



10,000 명

매일 새로 들어오는 난민 수

현장이야기



1. 난민 건강 실태

한정된 공간에 약 6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머무는 상황에서, 로힝야 난민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음식과 질병입니다. 일을 하거나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긴급구호물품입니다. DCH-Trust 의료기록에 따르면, 설사병이 난민캠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으로는 전염병의 일종인 ‘이질’, 급성호흡기감염(ARI), 소화성궤양(PUD), 고열 등이 있습니다. 충분한 식수 공급 실패와 영양실조가 위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주요인입니다. 곳곳에 설치한 관정, 물탱크 그리고 화물 트럭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충분히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로힝야 난민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 작업은 위쪽에 있는 진흙탕 물을 빼낸 후 약 3~4일간 90~120m의 땅을 판 후 그 안에 있는 깨끗한 물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캠프에 물 공급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오물 및 하수처리도 식수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캠프는 배수구가 시멘트로 덮여 있거나, 닫혀 있지 않은 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난민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영양실조 그리고 식량

로힝야 난민들은 일일 식량공급을 전적으로 긴급구호물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에 따라 식량이 분배되는 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한 가족(4명 기준)에 분배되는 식량의 구성은 쌀 22Kg, 대두유 5L, 두류 5Kg, 소금 1Kg, 생강 300G, 마늘 300G, 비스킷 1박스, 납작한 쌀 1Kg, 처트니 1Kg 그리고 튀긴 쌀 1Kg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4명 기준)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44.87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식량 구성입니다. 위 식량은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린 난민에게 분배됩니다. 난민 캠프를 통제하는 군대는 구역을 나누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급 카드를 발급합니다. 지역을 블록별로 나누고 보통 한 블록은 약 100가구로 구성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배급카드가 지급됩니다. 긴급구호물품이 도착할 때마다, 배급카드에 따라 분배됩니다. **배급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캠프의 난민들은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땀방울 흘리며 거의 반나절가량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줄서기'는 난민 캠프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현장이야기



3.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현장에 있는 NGO 단체는 의료 서비스 및 물품 배급과 더불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읽기 및 쓰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미얀마 지역 로힝야 사람들은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기 및 쓰기 능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은 아이들에게 방글라데시아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난민 생활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수업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기 및 쓰기 교육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난민 전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읽기 및 쓰기 교육을 포함한 성인대상 교육도 아이들 교육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여성 건강 문제

미얀마 라카인(Rakhine)에서 잔인한 박해를 피해 떠난 로힝야(Rohingya) 난민 중 전체의 80%는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적절한 의약품이 부족하여 다양한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로힝야 여성들은 영양실조, 인지 부족,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건강 문제에 노출되었습니다.**



현장이야기





5. 정치적 안정성과 난민촌의 미래

대부분의 난민은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면 라카인(Rakhine)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그들이 경작하던 논이 있고, 일을 했던 가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카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땅에 대한 권리도 없고, 공교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로힝야 사람들은 자신이 일했던 곳이라는 단 하나의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자녀를 잃은 여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은 예상외로 긴 시간 동안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긴급구호물품에 의지해 살아가는 로힝야 난민들에게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걸까요?

작년 11월, A-PAD Korea와 함께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한
정범모 박사(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님 글을 일부 발췌 수정하였습니다.

긴급구호활동





DCH-Trust

(Dhaka Community Hospital Trust/ A-PAD Bangladesh)



DCH-Trust는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외에도 재난 관리, 비소 저감, 안전한 물 공급 및 지역 사회 기반 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CH-Trust는 국내, 국제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현재 A-PAD Korea와 함께 로힝야 난민촌 긴급구호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활동

- 영양식 패킷 제공
- 의료서비스가 시급한 지역 우선 의료 지원
- 기본적인 건강 진단
- 출산 보건 서비스 및 소아과 관리
- 긴급 및 의뢰 서비스
- 매주 전문가 순회 진료
- 공중보건, 개인위생 및 영양교육
- 인식 교육 및 피임약 공급을 포함한 가족계획



긴급구호활동



영양식 패킷 제공

4,000가족 (1가족 4명 기준)
16,000명

*임산부 여성 및 아이를 우선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약 **100,000**명 이상 진료

*응급환자, 임산부 여성 및 아이를 우선 지원



의료 시설 운영

고정 진료소 **2**곳, 이동 진료소 **4**개



의료 전문가 고용

의사 **4**명, 긴급 의료원 **2**명, 공중 보건 전문가 **2**명



타헤라(Tahera) 이야기

아이는 작년 10월에 태어났어요. 미얀만 군인을 피해 여기로 올 때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 유산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현장에 있는 의료진 덕분에 무사히 낳을 수 있었어요.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와 아기의 상태를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 타헤라 베검(Tahera Begum)

재정보고

(기간: 2017년 9월 26일~2018년 11월 30일)

수입

(단위: 원)

구분	기부처	금액	비고
기업 및 단체후원	(사)디모스	1,000,000	
	(사)글로벌이너피스	500,000	
	(주)마인드디자인	11,000,000	
	(주)셀파우등생교실	528,900	
	아름다운가게	30,000,000	
	양포재단	2,578,000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5,000,000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9,507,000	
	(주)한국스마트카드	3,000,000	
	(주)디오로지텍	10,000,000	
개인후원	같이가치 with kakao	9,718,100	
	네이버 해피빈	3,330,100	(사)모먼트 (사)더라이트핸즈
	고두환	1,000,000	
	김우근	1,000,000	
	양경수	1,500,000	
	오현석	500,000	
	이호혁	5,000,000	
	전세환	1,000,000	
	정상훈	500,000	
	정석윤	500,000	
	후원계좌	1,623,000	
총계		98,785,100	

지출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비율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금 및 후원 개발비 • 현지 모니터링 • 산모 및 영유아 영양식 배분 • 의료서비스 제공 	광고 게재 비용 및 홍보활동 : 850,000원*3개월	2,550,000	3.3%
		항공비, 체류비 및 조사활동	2,017,960	2.6%
		영양식 세트 (쌀, 대두유, 설탕, 비스킷 등) : 1세트 9,446원 * 3,500명	33,061,000	43.3%
		의약품 구입 (약 50여종) : 20,174,140원	23,772,140	31.1%
		의료캠프 운영 (시설 유지) : 500,000원*4개월	2,000,000	2.6%
		현지의료진 활동비 : 75,000원*8명*4개월	2,400,000	3.2%
관리비	인건비	사업운용 인력 : 400,000원*2명*4개월	3,200,000	4.2%
	운영비	사무실 및 관리 운영비 : 200,000원*4개월	800,000	7.6%
	사업 기획개발	캠페인 및 후원계좌 관리 : 400,000원*4개월	1,600,000	2.1%
총계			71,401,100	100%

* 1차 후원금은 A-PAD 본부를 통해 현지 파트너 DCH-Trust로 전달되었습니다.

* 2차 후원금은 내년 2월, 현장에 클리닉 추가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전달할 예정으로, 현재 현지 정부와 논의 중입니다.

향후 계획



보건 센터 및 모바일 클리닉 설립을 목표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A-PAD Korea)와 DCH-Trust(A-PAD Bangladesh)는 보건 센터 및 모바일 클리닉 설립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12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산 보건 서비스

소아과 관리

전문가 순회 진료

공중보건, 개인위생 및
영양교육

영양식 제공

긴급 의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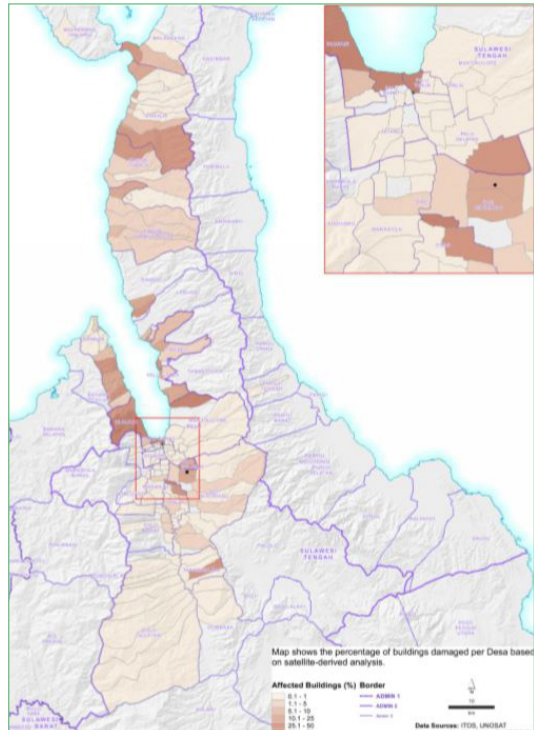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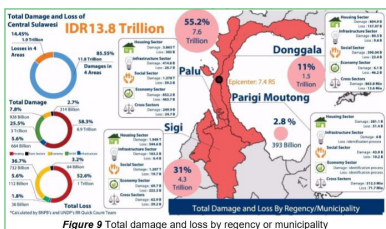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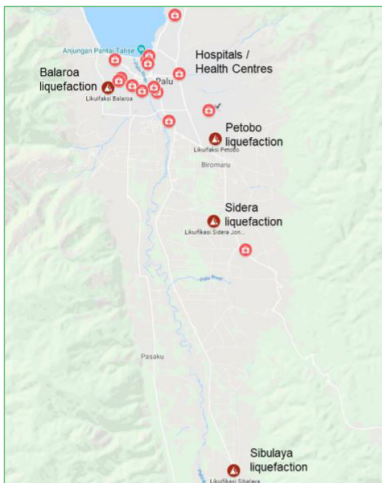
여전히 로힝야 난민은 굶주림, 전염병, 홍수 · 산사태,
송환 등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로힝야 난민 자원활동은 계속됩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하나은행 629-910011-22804 (사)모먼트 • 후원문의: 02-779-8802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진피해 지원

한국시간 9월 28일(금) 14시경 규모 6.0의 전진이 팔루시 북쪽 61km에서 발생. 이어서 18시 02분에 규모 7.4의 본진이 팔루(Palu)시와 동갈라(Donggala)에서 발생하였고 2~7미터의 지진해일(쓰나미)이 팔루시를 직격함.



인도네시아 정부자료에 의하면 술라웨시섬 약 150만 명이 지진 및 쓰나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됨. 10월 15일(월)까지 피해현황은 아래와 같음.

2,100
People dead

680
People missing

78,994
Internally displaced

68,451
Houses damaged

4,612
Major injured

20
Health facilities damaged

긴급구호활동



이재민 캠프 사진



식량 및 식수 패키지 제공

2,368가족 (1가족 4명 기준)

9,472명

*여성 세대주 및 아이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개인위생용품 패키지 제공

5,100명

(성인여성 2,300명, 아동 2,000명, 영유아 800명)

*임산부 여성 및 아이, 신생아를 우선 지원

현장 이야기



율리(Yuli) 가족 이야기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살기 위해 무작정 달렸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 때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옷이라곤 이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매트나 그 어떤 것도 없이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살아야 합니다. 구호식량 패키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품을 받고 나면 그래도 희망을 느낍니다. 이제 일주일동안은 음식과 물이 충분합니다. 이 후에도 구호식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율리 로잘리아(Yuli Rozalia)

재정보고

(기간: 2018년 10월 25일~2018년 12월 31일)

후원액 및 지출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아름다운 가게	식량 및 식수 패키지 제공 (쌀, 영양비스킷, 소금 등)	28,000,000	944가구 (3,776명)
경기도	식량 및 식수 패키지 제공 (쌀, 기름, 설탕, 통조림 등)	50,000,000	1,424가구 (5,696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위생용품 패키지 제공 (생리대, 기저귀, 비누 등)	92,777,400	5,100명 (여성 2,300명, 아동 2,000명, 영유아 800명)
총계		170,777,400	14,572명

* 후원금은 A-PAD 본부를 통해 현지 파트너 A-PAD 인도네시아로 전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지진·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재민 캠프에서 지내는 술라웨시 이재민들은 여전히 배고픔과 전염병, 우기·산사태 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A-PAD Korea)와 A-PAD Indonesia는 **교육용품 지원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몸만 빠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학구열은 지진의 공포도 이겨내는 원동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다르게 7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교복, 책가방, 학용품 등 School Kit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이재민 자원활동은 계속됩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기업은행 038-142067-01-040 • 후원문의: 02-779-8802

서일본 폭우피해 지원

피해현황

- 2018년 7월 5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오카야마 현, 에히메 현, 히로시마 현 등 서일본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음.
- 30년 만에 최악의 수해로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40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음. 도로 유실 등의 피해도 컸음.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354개 구간이 통행 불능 상태가 되고, 에히메현은 1,443세대가 수도물 공급이 끊겼음.
- 폭우 피해로 인해, 약 3,600명의 이재민이 발생 하여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대피소 생활을 했음.

지원 내용

- A-PAD은 폭우 피해에 대응하는 Civic Force와 피스원즈내팬과 함께 합동 긴급 지원팀을 결성하여, 현장으로 출동함. 7월 7일 ~ 9일 까지 긴급지원팀은 피해 현장에 나가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였고,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였음.



- 7월 10일부터 히로시마 현 25개 대피소, 약 3,000명에게 물자를 배포함. 수요에 따라 쌀, 음료수, 간식, 의류, 속옷, 선풍기, 비상용 화장실, 생리용품, 화장지 등을 제공함.
- 각 대피소에 있는 교실을 빌리거나 트레일러를 동원하여 임시 진료소를 마련함. 냉각기 등 설비를 구축하여 24시간 환자를 진료했음.



- 히로시마 현 뿐만 아니라 오카야마 현, 에히메 현 지역에 물자 배포를 확대 지원했으며, 공공 대피소 이외의 피해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에게도 지원을 했음.

재정보고

(기간: 2017년 7월 11일~2018년 9월 13일)

수입

(단위: 원)

구분	기부처	금액	비고
기업 및 단체후원	(주)마인드디자인	500,000	
	(주)공감만세	1,000,000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5,000,000	
개인후원	고두환	1,000,000	
	김형미	200,000	
	노진호	100,000	
	오현석	500,000	
	이재향	100,000	
	이호혁	5,000,000	
	정범모	100,000	
	정상훈	1,000,000	
	정석윤	300,000	
		14,800,000	

지출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비율
사업비	A-PAD MO 송금 (25개 대피소, 약 3,000명에게 물자 배포) 쌀, 음료수, 간식, 의류, 속옷, 선풍기, 비상용 화장실, 생리용품, 화장지 등.	10,000,000	100%
총계		10,000,000	100%

* 2차 후원금은 A-PAD 본부를 통해 서일본 홍수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물자 배포 등 피난소 운영에 지원됩니다.

청소년 재난안전 원정대 Y.S.K 1기 ‘어서와, 재난은 처음이지?’



사업개요

- **사업대상:** 초, 중, 고등학생 80명
- **사업일정:** 2018년 4월 ~ 11월
- **사업예산:** 16,260,000원
- **주관/주최:**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A-PAD Korea)
- **지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협력:**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한양대학교 LINC사업단
- **사업목표:** 청소년 참가자가 재난이 일상생활에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학습하고, 작은 사고부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1차 대응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체험하며 몸에 익히고, 재난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임.

활동내용

총 4회 차로 서울 내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음. 재난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는 강의와 놀이 체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실제 재난 상황을 경험하고 대피 훈련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재난 예방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배운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단순 체험이 아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참가자가 재난대응 역량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참가자 후기

단지 재난은 무서운 것이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잘만 대처를 하면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였을 때 크게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난상황임을 알리고, 대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나뿐 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재난 캠프를 통해 재난에 대한 이론적인 능력과 재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좋았다.

— 청소년 재난안전 원정대 Y.S.K 1기 참가자 왕*근



2018 아이쿱 재난대응리더 양성과정 ‘재난아 게 물렀거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영남권역 iCOOP 조합원 30명
- **사업일정:** 2018년 8월 22일 ~ 9월 19일
- **사업예산:** 30,000,000원
- **주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 **주관:**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A-PAD Korea)
- **사업목표:**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재난관리 필요성을 확산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실천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재난대응리더 양성과정을 수료한 조합원이 재난리더가 되어 각 지역생협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활동내용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19일 까지 총 5회차에 걸쳐 재난대응리더 양성과정을 진행함. 더 이상 한국이 재난 안전지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아이쿱 조합원의 재난 관련 자조 역량을 높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확산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A-PAD 본부 네키 카오리 사무국장 등 총 8명의 재난 분야 전문가가 실제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과 대응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함. 아이쿱 조합원들이 직접 토론하고,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을 하며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양성과정 종료 후, 현재 아이쿱생협만의 방재 가이드를 개발 중에 있음. 12월 말, 제작이 완료되면 모든 아이쿱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임.

참가자 수기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 발생 직후 몇 초 몇 분의 순간이더라.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너무 놀라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아무리 잘 구축되어 있어도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고 자신을 돌봐야한다(자조). 스스로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미정 아이쿱재난위원회 위원장





• 외교부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A-PAD KOREA)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8층 • 전화번호 02-779-8802 • 대표메일 apadmktorea@gmail.com
 - 홈페이지 apadkorea.org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padkorea> • 네이버밴드 <https://band.us/@apadkorea>
 -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2-098580 사단법인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